

◆ 북미

- Fitch : 캘리포니아 산불, 역대 가장 큰 산불재해손실로 기록될 수 있어.
-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인상 전망
- 캐나다, 모기지 보험의 성장 가속화

◆ 유럽

- 영국, 전체 차량의 6.5%가 무보험차량
- UN, 마지막 환경보고서 “글로벌 환경 전망 : GEO-4” 발표
- Stewart 권원보험사, 실시간 주택정보패키지관련 권원보험 판매

◆ 일본

- 니혼생명, 웰빙기업체에 사회적 책임 투자(SRI) 결정
- 생보사들의 학자금보험 판매 지속적으로 증가
- ‘저출산 사회 백서’ 일본 각료회의에서 채택

◆ 중국

- 2007년 3/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(1)
- 중국, 9월 수입보험료 거수실적 회복세
- 중국 보험회사, 인재육성위해 대학에서 입도선매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Fitch : 캘리포니아 산불, 역대 가장 큰 산불재해손실로 기록될 수 있어.

- Fitch는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확산된 산불로 인한 보험손실이 올해 가장 피해가 큰 재난손실이 될 수 있으며, 잠재적으로 미국 손해보험산업에 가장 큰 산불재난손실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.
 - 총 보험손실의 정확한 전망은 아직 이르나, EQECAT, Inc.의 일차적 추정에 의하면, 보험손실은 현재까지 10억달러를 넘었고 계속 증가하는 중임.
 - Risk Management Solutions (RMS)는 보험손실을 9억달러에서 16억달러 사이로 추정하고 산불의 진행에 따라 이 수준을 훨씬 초과할 수 있다고 경고함.
 - Fitch는 보험손실 10억달러당 손해보험산업의 2007년 손해율이 0.2%p 가산된다고 추정함. 또한 가정종합보험손실 10억달러당 손해보험산업 2007년 가정종합보험 손해율이 1.9%p 가산될 수 있다고 지적함.
- 금번 재난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는 보험종목은 개인보험, 특히 가정종합보험이지만 자동차보험도 영향을 받음.
 - 기업보험 또한 기업재산보험과 기업휴지보험의 보험청구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. Fitch는 만약 손실이 상당한 수준으로 높지 않고 단일 사건으로 총체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손실이 초보험(E&S)사업자에게 국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.
- 금번 사건의 보험손실은 ISO의 재난서비스가 보고한 4월 중순의 폭풍으로 인한 보험재물손실 12억 달러보다 더 큰 재난손실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임.
 - 더구나 보험손실은 1991년 Oakland Hills의 17억달러의 산불손실, 그리고 현재의 산불과 매우 유사한 영향을 미쳤던 2003년 남부 캘리포니아 산불의 20억달러를 넘어설 잠재성을 가지고 있음.

(Business Wire, 10/25)

□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임원배상책임보험료 인상 전망

-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인한 투자자의 소송으로 임원배상책임보험(D&O) 사업자들이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함.
- 규제변화와 2차 저당시장 확장은 "증권금융은행(securitizer)"라 알려진 다양한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모기지 판매증대를 초래했음.
 - 증권금융은행들은 상당한 모기지를 취득한 후, 그에 대한 현금흐름권리를 투자자들에게 매각했음.
- 서브프라임모기지 차입자들은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조정이자율(ARM)의 문제는 2005년 이후 가중되어 왔음.
 - 이른바 한 두 차례 납부지체 후 파산되는 서브프라임 ARM문제는 2005년 후반과 2006년에 시작되었음.
- Bernanke는 2005년과 2006년의 허술한 언더라이팅 기준을 비난함.
 - Bernanke에 따르면 언더라이팅 기준은 잘못된 인센티브 기준 적용과 투자자들의 고수익증권에 대한 높은 수요 때문에 허술해진다고 함. 연방준비은행은 그릇된 대출관행을 단속할 것을 공언함.
- 그러나 주택버블을 만든 그릇된 대출관행에도 불구하고 보험시장조사기관은 임원배상책임보험산업에 대한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영향에 대해 극단적인 전망을 하고 있음.
- 연방법원규정은 서브프라임관련 단체소송의 제기를 어렵게 하고 있음. 왜냐하면, 총제적 태만과 관련되지 않는 한 회사의 경영진들이 좋지 않은 경영의사결정 또는 주의부족에 책임이 있다고 할수 없기 때문에 일련의 법적 소송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연구기관들은 보고 있음.
- 전문가들은 모기지대출과 관련된 회사, 그리고 어쩌면 금융서비스부문 전체에 대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가 조정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.
 - 일부는 임원배상책임보험사업자들이 보다 제한적 보험증권조건을 부과해 일부회사들이 보험구매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.

(Reuters, 10/23)

□ 캐나다, 모기지 보험의 성장 가속화

- 캐나다의 모기지 보험시장은 최근 외국사의 시장 진입을 통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은 늘어갈 것으로 전망됨.
- 2006년 까지 캐나다 모기지 보험 시장은, 1946년 연방정부에 의해 설립된 Canadian Mortgage and Housing Corp(CMHC)와 1995년부터 영업을 시작한 미국 Genworth Financial사의 독점경쟁 체제였음.
- 작년의 규제완화로 인해 미국의 AIG United Guaranty, PMI Group, Triad Guaranty Insurance등의 회사들이 올해 초 모기지 보험시장에 진입하였으며 미국 모기지 보험회사인 MGIC Investment Corp은 올 여름 영업신청을 내놓은 상태임.
- 캐나다에서는 주택구입자가 주택구입시 20% 선납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모기지 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있으며, CMHC에 따르면 그러한 대출자는 전체 모기지 대출자의 45~55%에 이름.
- 외국사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심화는 캐나다의 모기지 보험 소비자들에게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됨.

- 캐나다의 경제활황, 낮은 실업률과 이자율, 꾸준한 소득 증가 등으로 인해 캐나다의 모기지 보험시장은 세계 2위로 성장하였음.
- PMI그룹의 회장은 캐나다의 모기지 보험시장이 충분한 주택거래로 인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함.
- 캐나다에서는 더욱 보수적인 언더라이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미국의 모기지 대출 소비자들을 현혹했던 “티저 이율(teaser rates)”도 허용되지 않고 있음.
- 티저이율은 모기지 상품을 판매할 때 최초 2년간 저리를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간 이후 이자율이 크게 상승하여 대출자의 신용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.
- 최근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캐나다 주택경기의 상승은 모기지보험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(Reuters, 10/31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영국, 전체 차량의 6.5%가 무보험차량

- 영국 정부는 2백만대 이상의 자동차가 무보험 차량이라고 밝혔으며, 이는 운전자 15명 당 1명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수준임.
 - ABI(영국보험자협회)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험미가입 운전자는 사고발생 후 도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음주운전 확률 역시 일반 운전자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
- 이와 관련하여 의회에서는 보험미가입 운전자는 범법행위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준법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전가시키게 됨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.
 - 영국 자유민주당은 무보험 운전자가 연간 10만명 이상 증가하여 전체 운전자의 6.5%에 달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준법운전자들이 평균 30유로 이상의 보험료를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,
 - 정부는 무보험 운전자 통제문제에 대한 정책실패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함.
- 이에 대하여, Jim Fitzpatrick 교통부 장관은 현재 210만대 정도의 차량이 무보험상태이고 무보험차량 비중이 6.5%에 달하고 있지만, 무보험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근거는 없으며,
 - 2006년 무보험 운전자에 의한 보험금 청구는 오히려 4.2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.

(Daily Mail, 10/29)

□ UN, 마지막 환경보고서 “글로벌 환경 전망 : GEO-4" 발표

- UNEP(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; UN환경프로그램)는 지구의 상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한 “글로벌 환경 전망 : 환경전개 (GEO-4)"라는 상세보고서를 출간하였음.
 - GEO-4는 환경관련 UN 보고서 중 가장 종합적인 자료로 390명 이상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, 전 세계 1,000여 곳 이상의 지역에서 면밀히 조사된 것임.
- GEO-4는 UNEP의 주요 보고서 시리즈 중 마지막이며, 첫 번째 보고서는 20년전 출간된 “환경과 개발, 우리의 공통된 미래”로서 ‘지구의 대기, 토지, 용수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’을 측정한 것임.
 - 최근 발간된 GEO-4는 1987년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, 환경과 관련한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음.
- UNEP의 보고서에서는 기후변화, 종의 멸종, 인구증가에 따른 식량조달 등을 “주요 위협”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음.
 - 보고서는 부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를 주된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, 관리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고 있음
 - 또한 환경문제를 직시하는데 진일보하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음.
- UNEP는 자연 및 환경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류 생존이 위협될 수 있으며, 보고서의 목표는 어둡고 암담한 시나리오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문제의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음.

(Insurance Journal, 10/29)

□ Stewart 권원보험사, 실시간 주택정보패키지관련 권원보험 판매

- 국가재산조사기관 분야의 리더이자, AHIPP(Association of Home Information Pack Providers : HIP제공협회)로도 알려져 있는 Richards Gray사는 최초로 실시간 HIP(Home Information Pack; 주택정보패키지) 제공을 개시하였음.
 - HIP는 주택상태와 현재까지의 개·보수 현황 등 매물 관련 정보를 모아놓은 것으로, 영국 정부는 주택 매매과정에서 주택구매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신속한 계약체결을 유도함과 동시에 주택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HIP 제도를 2007년 8월 도입하였음.
 - Richards Gray사는 Stewart 권원보험사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효율적인 HIP프로세스 확보와 고객보호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.
- 영국의 Stewart 정보서비스그룹 소속 거래 언더라이터인 Stewart 권원보험사는 Richards Gray사의 실시간 HIP 제공을 높이 평가하였음.
 - Stewart 권원보험사의 CEO인 Steven Lessack은 Richards Gray사가 AHIPP로 선정됨과 동시에 48시간 이내의 실시간 주택정보패키지 제공은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,
 - 또한 Richards Gray사의 주거래 보험회사로서, 매수자와 매도자가 보호받으면서 신속한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참여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밝혔음.
- HIP패키지의 일부인 Stewart 권원보험 증권은 HIP패키지를 통해 주택관련 정보조사 과정에서 지방정부 또는 조사대리인의 실수 및 누락으로 인해 공시되지 않은 문제로 발생한 피보험자의 손해까지 보상하게 됨.

(Insurance Newsnet, 10/29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니혼생명, 웰빙기업체에 사회적 책임 투자(SRI) 결정

- 니혼(日本)생명은 지난 31일 건강식품 제조업체 등 건강관련 분야의 주식으로 투자를 특화한 SRI(사회적 책임 투자) 투자신탁을 신규 개설하였다고 발표함.
 - 환경기업에 특화한 SRI 투신의 개설은 최근 일본내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건강관련 분야에서는 일본에서 처음임.
 - 신규 투신을 관리하는 회사는 니혼생명그룹의 자산운용 자회사인 ‘닛세이에셋매너지먼트’이며 최초 펀드 설정액은 50억 엔으로 건강식품 제조와 의료관련 서비스 등 건강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40~50 종목의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하고 있음.
 - 사모 투신으로서 니혼생명이 전액을 출자하였지만 운용성과 등에 따라 향후 공개모집 투신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음.
- 일본의 보험업계는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과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건강관련 기업의 실적이 성장하고 있어 일반기업의 주식 종목과 비교해서 높은 투자효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.
 - 니혼생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등 동 분야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.

(FujiSankei Business, 11/1)

□ 생보사들의 학자금보험 판매 지속적으로 증가

- 소니생명과 후코쿠(富國)생명, 알리코재팬, 스미토모(住友), 타이요(太陽) 생명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‘학자금 보험’이 각사 모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그러나 ‘학자금 보험’의 원조격인 우체국보험의 학자보험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저출산 시대에 대비하여 자녀와 관련한 학자금 보험시장의 경쟁심화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어 보험소비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.
 - 소니생명의 학자금보험은 ‘보험료 기준’과 ‘학자금 기준’으로 설계할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, 연령별로 17세 만기형, 18세, 20세, 22세 만기형까지 설계할 수 있으며 12세, 15세 진학 축하금과 만기에 일시금으로 지급 방법의 선택이 가능함.
- 생명보험회사들의 신계약 판매 건수는 2004년 약 8만건이었으나, 2005년 약 10만건을 돌파하고, 2006년 약 10만건대를 유지하면서 계속 증가함.
 - 후코쿠생명은 2004년에 약 1만 8000건, 2005년 약 2만건, 2006년 약 2만 3000건으로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음.
 - 타이요생명의 ‘어린이보험’은 2004년과 2005년 모두 약 5800건에 불과하였으나 2006년에는 약 6600건까지 성장하였으며 동 회사는 3대질병 보장을 특약으로 부가할 수 있는 ‘신 어린이보험’을 2007년 4월부터 판매하고 있음.
 - 이 외에 알리코재팬은 2004년 약 9000건, 2005년 약 1만 2000건, 2006년 약 1만 6000건으로 급성장하였고 스미토모생명도 2005년 약 2만 4000건, 2006년 약 2만 5000건으로 성장함.
 -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 20세까지 자녀에게 지출되는 평균 비용은 가구당 약 2000만엔으로 나타났으며 또한, 생명보험문화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의 교육비용은 약 531만 엔으로 나타남.

(일본보험매일신문, 10/30)

□ ‘저출산 사회 백서’ 일본 각료회의에서 채택

-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2007년 ‘저출산 사회 백서’를 각료 회의에서 결정하였음.
 - 이 백서는 여성의 ‘직장과 육아’를 동시에 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.
 - 또한, 이 백서는 ‘여성이 안심하고 결혼하여 출산할 수 있도록 남녀 모두 일과 가정을 소중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’ 개혁을 요구
 - 이 백서는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수의 감소 외에 미혼, 만혼, 만산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으며, 미혼자의 90%는 향후 결혼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지 않아 결혼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
 - 또한, 올해부터 11월 세번째 일요일을 ‘가족의 날’로 정하고 전후 각 1주 간을 ‘가족주간’으로 시행한다고 발표
- 이 백서는 저출산 사회가 이대로 진행되면 2005년 1억 2777만명이었던 일본의 인구가 2055년 8993만명까지 감소한다는 전망을 소개하였으며 노동력과 연금, 고령자 의료 등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함.
 - 또한, 일하는 여성의 67%가 임신과 출산을 계기로 직장을 그만두는 반면, 남성의 50% 이상이 직장가사 일을 희망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직장의 업무를 우선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 - 구체적인 저출산 개선 대책으로는 다양한 취업 형태에 따른 탁아소 서비스 확충, 직장내 보육시설의 지역 개방, 방과 후 아이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의 확보 등을 들고 있음.

(mainichi online news, 11/2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2007년 3/4분기 중국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 해석(1)

- 중국 보감위가 11월 초 발표한 <2007년 3/4분기 보험중개시장 발전보고>에 따르면, 지난 2007년 9월 30일 현재 전국 보험회사가 보험중개 채널을 이용하여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총 4,288억 위안으로 전체 수입보험료의 80.49%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음.
- 보고서는 보험중개시장에 대해 ‘발전과정이 순조롭고 창의성이 강화되었으며 시장질서가 호전되고 있다.’고 평가한 뒤, 전업중개기구, 겸업대리기구, 보험판매원 등 3대 보험중개조직에 대한 분석을 내 놓았음.
- 보고서 통계에 따르면, 금년 9월말 현재 중국 전역에 2,297개(2/4분기말 대비 41개 증가) 중개기구가 분포돼 있으며, 보험중개기구가 보유한 자산 총액은 75.3억 위안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음.
- 보고서 내용 중 관심을 끄는 부분은, 전업중개기구의 절대 수량은 약간 증가했으나 상대적인 증가속도는 크게 하락했다는 점임.
 - 보감위가 지난 3/4분기 개설을 허가한 중개기구는 모두 73개로 지난 해 동기 대비 29개가 감소한 반면, 시장에서 퇴출된 중개기구 수는 전분기 대비 26.5%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.
- 이외에도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은 전업중개기구는 전체 중개기구의 5%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%가 증가함으로써, 전업중개기구와 보험회사의 협력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
(금융시보, 11/3)

□ 중국, 9월 수입보험료 거수실적 회복세

- 9월 중국 보험시장은 642억 위안을 거수함으로써 8월에 이어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, 베이징(北京), 텐진(天津), 상하이(上海) 등은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지역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음.
- 9월 수입보험료는 전월 대비 평균 22.6% 성장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나, 지난 3월에 기록한 779억 위안에 비해 여전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.
- 수입보험료 증가율을 업종별로 살펴보면, 생명보험은 18.9%, 손해보험이 18.2%로 전체 평균보다 낮고, 상해보험과 건강보험이 각각 104%, 51% 상승하면서 증가율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지역적으로는 베이징(-3.2%), 상하이(-5.0%), 텐진(-6.5%) 등 대도시의 수입보험료가 전월대비 하락하면서 평균 20% 대의 상승세를 기록한 타 지역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음.
- 하지만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특히 경제발전이 두드러진 지역의 증가속도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 훨씬 빠르다는 점이 발견됨.
 - 9월 수입보험료의 경우 그 증가율이 텐진 114.4%, 광둥성 79.7%, 베이징 79.0%, 상하이 46.2% 등으로 40% 이하에 머물고 있는 기타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.

(상해증권보, 11/2)

□ 중국 보험회사, 인재육성위해 대학에서 입도선매

- 보험회사들이 업계자율공약에 따라 상대회사의 인력을 마음대로 스카웃해 갈 수 없게 되자 조기육성으로 고급인재를 미리 확보하겠다는 차원에서 대학교로 관심을 돌리고 있음.
- 한국에서도 지난 90년대 중반 보험회사간 인력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스카웃 제한과 같은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었고, 이후 보험회사들이 대졸자를 대거 채용하게 된 계기가 된 적이 있었음.
 - 상황은 비슷하지만 당시 한국에서는 보험감독기관까지 나서서 스카웃을 제재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, 지금 중국에서는 감독기관이 나서기보다는 업계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다는 차이가 있음.
- 국내외 보험회사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남경의 경우, 귀타이생명(國泰人壽)이 지난 해 남경대학에 장학기금을 설립했고, AIA는 남경대와 MOU를 맺고 보험계리센터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음.
 - 또한 렌타이메트로(聯泰太都會) 역시 조만간 유명대학에 장학기금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.
- 이처럼 보험회사들이 대학교로 가고 있는 이유는 저장성(浙江省) 지역 보험회사들이 지난 해 관리자 스카웃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율공약을 맺었기 때문이며, 보험회사들은 사전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임.

(남경진보, 11/2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6년말	07.10.19(금)	07.10.26(금)	07.11.2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美 10년국채	4.71	4.39	4.40	4.32	-0.08
	英 10년국채	4.73	4.89	4.85	4.87	+0.02
	日 10년국채	1.68	1.60	1.62	1.59	-0.03
주가	美 DJIA	12,463.15	13,522.02	13,806.70	13,595.10	-1.53%
	美 Nasdaq	2,415.29	2,725.16	2,804.19	2,810.38	+0.22%
	英 FTSE	6,240.90	6,527.90	6,661.30	6,530.60	-1.96%
	獨 DAX	6,596.92	7,884.12	7,949.17	7,849.49	-1.25%
	佛 CAC40	5,541.76	5,740.48	5,794.87	5,720.42	-1.28%
	日 Nikkei225	17,225.83	16,814.37	16,505.63	16,517.48	+0.07%
	中 상해종합	2,675.47	5,818.05	5,589.63	5,777.81	+3.37%
	대만 가권	7,823.72	9,611.72	9,631.51	9,273.09	-3.72%
	홍콩 항셱	19,964.72	29,465.05	30,405.22	30,463.73	+0.19%
환율	엔/달러	118.90	115.48	114.01	114.43	+0.42
	달러/유로	1.3148	1.4294	1.4325	1.4436	+0.0111
	위안/달러	7.8135	7.5110	7.4820	7.4610	-0.0210